

“똑같은 일상이지만 ‘미래 걱정’ 덜었죠...고맙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보내지만 내일,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었습니다.”

26일 영광 주민 이승(7·사진)씨는 신분이 생긴 후 3개월여간의 삶에 대해 이렇게 소회했다.

50여년간 무적자(無籍者)로 살아오다 지난 9월 광주가정법원이 성과 본 창설하기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은 이씨는 이전처럼 영광 한 마을에서 지내고 있다.

주로 밭일을 하기에 동절기를 맞아 임시 휴업 상태이지만, 이날도 눈을 뜨자마자 10여년째 일하고 있는 대파 농장에 다녀왔다는 이씨는 그 이유에 대해 “산책 겸”이라면서 “그래야만 마음이 편하다”고 다소 겸연쩍은 듯 웃었다.



이씨의 집도 지난 6월18일 처음 찾았을 때보다 근사해졌다. 공간 자체가 커진 건 아니었지만, 가스레인지 등 고장났던 가전제품들은 전부 새것으로 바뀌었고 이전에는 없었던 책상 등 새로 놓인 가구들도 눈길을 끌었다. 창문 안으로 여과 없이 내리쬐던 햇

●50여년 무적자 신분 벗어난 영광 이승씨

성·본 창설 허가 후 3개월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은 아직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해프닝 탓... “또 다른 무적자 구제되길”

별은 새로 달린 커튼 덕에 조절이 가능해졌고, 매트리스에 쌓여 있던 옷가지들은 행거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씨가 무적자였을 때부터 그를 도와 온 영광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임두섭)와 영광군지역장애인 자립지원센터(센터장 남궁경문) 덕이다.

이들 단체를 비롯해 영광군 등은 신분이 생긴 이씨가 이전과 달리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당 등 법적 해

택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이씨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지적장애인 지정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두고 벌어진 해프닝 때문이다.

지난 9월30일 이씨는 영광군 염산면 사무소를 찾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신청서를 작성, 제출했다. 염산면사무소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증 신청

절차를 밟아 임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을 발급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여가 지나서 이씨의 특정후견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은 행정 기관이 아닌 법원의 소관이라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임시 신분증은 무효가 돼버렸고, 이씨는 광주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다행히 11월25일 광주가정법원이 신청 당시자 심문 후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을 위한 사전 절차는 최종 마무리됐고, 이씨는 이날 초다시 한 번 염산면사무소를 찾아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했다.

현재 실물 주민등록증이 발급은 됐으나, 염산면사무소에 도착하지 않아 이씨는 하

루빨리 수령할 수 있길 기다리고 있다.

이승씨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을 때 믿기 참뭉되는 건 아닐지 두려웠다”면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바뀐 임시 신분증을 받았을 때 마음이 놓였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신분이 생겨서 좋지만, 일상은 크게 바뀌진 않았다”면서도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할 것이고, 이승이내 이름으로 이웃을 도우며 살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이씨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해지고,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된 게 가장 큰 변화”라며 “내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무적자들도 하루빨리 발견되고 구제됐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안재영 기자



도전! 청렴 골든벨을 울려라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세대공감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가 27일 오후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부서별 대표자들이 공직자가 알아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의 문제를 풀고 있다. /김애리 기자

민노총 광주본부 “市, 사무실 이전 적극 협조를”

시의회서 기자회견...공개 토론 제안

민노총 광주지역본부(이하 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시를 향해 노조 사무실 이전 문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26일 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민노총 광주본부 사

무실 입주를 허(許)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내년 1월25일 현 사무실 임대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7월부터 광주시와 사무실 이전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을 논의했다”며 “그러나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반대와 그뒤에 숨은 광주시의 방관 행정에 사무실이 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인천·대구 등 다른 5개 광

역시는 노동 단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는 그렇지 않으며 하남근로자복지관의 경우 공단이 2009년 개관 이후 15년간 독점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다”며 “노조는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장 및 공단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조도 현실적 대안을 검토하고 광주시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주성희 기자

‘토지 비율’ 허위광고 지주택 추진위 대표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 벌금 500만원 원심 유지 판결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실제 확보한 토지 비율보다 부풀려 광고를 한 추진위원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에 따르면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60대)씨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광주 동구 한 지역의 주택조

합추진위원회 대표로, 시공사 선정 및 분양 등 업무대행계약을 맺은 회사의 대표 B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7-8월 동구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대지 사용권 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이 20.64%에 불과함에도 조합 가입 희망자들에게 80% 이상이라고 허위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허위 광고 사실 등을 알게 된 동구청은 A씨에게 홍보물 즉시 철거 및

정정, 주택조합 실적보고서 조합원 대상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 요구 등 명령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공동주택의 공평한 공급을 저해하며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의 양형 부당을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정당했다고 봤다. /안재영 기자

31사단서 집단 식중독...보건 당국 조사중

장병 등 20명 복통 호소...노로바이러스 검출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보건 당국이 조사 중이다.

26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식을 먹은 31사단 장병과 종사자 등 20명이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북구는 곧바로 식품·환경, 종사자와 유증상자의 검체를 수거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북구는 유증상자로부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현재는 식

중독 발생 경위 파악을 위해 식품·환경 검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이와 관련, 31사단 관계자는 “복통 환자는 의무시설에서 치료받았고 현재는 모두 회복된 상태”라며 “추가 발생한 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단은 환자가 발생한 즉시 역학 조사를 진행해 보건 당국에 검체 검

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여수 해상 SUV 추락...운전자 사망

여수 해상에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여수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3분께 여수시 화양면 해상에 차량이 빠져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전파받은 여수해경은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안에서 50대 운전자가 숨진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가자 W 1,80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가자 W 1,80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가자 W 80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형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